

소금꽃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적어도 이민자는 이민을 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이민을 선택을 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점심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에 아쉬움이 남는다. 하물며 물 다르고 말이 다른 이민을 선택한 이민자들에게 아쉬움과 번민은 오죽할까.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두 길을 한꺼번에 걸을 수 없으며 오직 한길을 걸을 수 있을 뿐이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러므로 삶은 <선택>이다. 선택의 누적이 지금의 <나>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뭐 하나 선택이 아닌게 없다. 선택은 깃털처럼 가볍고, 우주처럼 무겁다. 그러므로 삶은 가볍고도 무겁다. 그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글은 한겨레 출판에서 출간한 <길은 걷는자의 것이다>에서 일부 인용함을 밝힌다.

<소피의 선택>이라는 책을 영화화한 것이 있다. 주인공 소피는 두 자식을 데리고 아우슈비츠로 끌려간다. 그때 나치 장교가 소피에게 두아이 중 한 아이는 구해줄 수 있으니 <선택>하라고 한다. 소피는 두 아이 중 한 아이만을 선택할 수 없다. 현대사회의 약자나 피지배자에게는 이런 유사한 <선택>을 강요받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회는 지배집단, 즉 자본가나 권력이 요구하는 <선택>을 강요받으며, 정작 자신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민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불법체류자> <영주권 대기자>..아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니면 뚜렷한 목적이 있어 이민이라는 <선택>을 하였다 할지라도, 막상 이민의 생활은 정해진 외길이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길을 돌아 갈 수도 없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렸기 때문이다. 이민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몇가지나 될까. 합법적 신분이 될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 적어도 아이들이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이 땅에서 숨죽이고 살아야 한다. 먹고 살아야 하니 땀흘려 일해야 한다. 불법체류자가 무슨 큰 죄라도 지었는가? <불법체류자>라는 그 낙인 하나 때문에 그 혼한 교통 딱지 하나 떼는 것도 두렵다. 불법체류자처럼 법을 잘 준수하는 미국인도 없을 것이다. <소금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땀이 굳었을 때 생기는 것을

말한다. 하늘에 별이 있듯이 땅에도 별이 있는데, 땅의 별이 <소금꽃>이다. 이민자들에게 긴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소금꽃이 피었던가. 지금도 이곳 저곳의 삶의 현장에는 소금꽃이 피어난다. 하지만 소금꽃이 어찌 이민자에게만 국한되겠는가. 현대 자본주의의 약자나 소외된 자 모두가 <소금꽃>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김진숙’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당했다. 그 뒤 20 여년을 해고자이자 노동운동가로 살고 있다. 2011 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부당함을 알리려고 309 일동안 크레인 위에서 살았다. <소금꽃 나무>의 저자인 그녀는 민주 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2003 년 650 명을 정리해고한 회사에 맞서 2 년을 투쟁하여 겨우 합의를 얻어낸다. 하지만 사장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김익주 노조위원장이 같은 크레인에 올라 129 일간 농성을 하다가 스스로 크레인 꼭대기에서 목을 메고 자살한다. 이에 또 다른 노동자가 도크에 몸을 던져 투신자살을 한다. 그녀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익주를 생각하며 거기에 오른 것이다. 그녀는 김익주를 생각하며 8 년동안 냉방에서 자고, 찬물에 머리를 감으며 고통 속에서 살았다. 2010 년 회사는 3 천억원 흑자를 내면서도 432 명을 해고한다. 눈바람 몰아치는 2011 년 1 월 6 일 새벽 3 시 부산 영도 조선소 한진중공업 35 미터 높이의 크레인에 오른다. 크레인은 24 시간 내내 흔들린다. 누우면 머리와 발이 닿는 좁은 쇠철판 위에서 1 년여를 살았다. 두달동안 계속 멀미만 한다. 그녀는 309 일동안 고공에 메달려 농성하면서, 살아서 내려가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한다. 크레인 위에서 제일 힘든 것이 세상의 단절감과 고립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지지자들을 보며 “내가 간절한 만큼 저사람들도 간절하구나. 내가 죽으면 저사람들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겠구나. 그 간절함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신념으로 죽지 않고 버텼다고 한다. 한국에는 비정규직이 9 백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어느 조직이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몇배나 더 많다. 현대, 삼성, 엘지,한전, 철도공사, 지하철, 등등 한국의 대기업은 비정규직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 하청업체도 여기에 해당한다. 정규직의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 열악한 복지후생, 노조도 없고 단체도 없다. 짝소리라도 하면 즉시 해고 당한다. 쌍용자동차에서는 21 명이 죽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하면 노동자가 아니고 귀족이며 보수다. 그들은 그래도 대접받고

*본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씨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보호받는다. 이제는 노사의 문제보다 노노의 문제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고착화가 더욱 심각하다. 그녀는 말한다. “저는 변화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움직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딱 그만큼씩 바뀌어 왔습니다.” 누가 역사의 중심에 서느냐에 따라 역사는 바뀐다. 안병무 박사는 “관념이 아니라 땀을 흘려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땀을 흘려야 하고, 이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결단력 있게 선택하자,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자. 혼자 걷기가 외롭고 두려우면 여럿이 함께 걷자. 김남주 시인의 노래처럼 “가다 못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그렇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이민자들이여, 참고 견디자. 우리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가자.